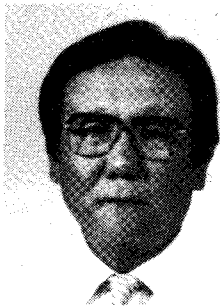


의학적 시각에서 본 한방의 역할

한방에는 당뇨라는 병명은 없으며 다만 당뇨병때 나타나는 여러증상으로 「소갈」(消渴)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즉,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양이 증가하고 체중이 줄며 원기가 없어지는 경우를 통틀어 소갈이라고 한다.





김목현
(한양대학병원 · 내과)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난치 혹은 불치의 병으로써 현대의학으로는 고칠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한방에 의존하여 보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한방의들이 한방치료로 당뇨병을 고칠수 있다고 주장하고도 있다.

한방과 현대의학의 차이

그러나 사실은 당뇨병에 대한 개념이 현대의학과 한방이 서로 같지 않으며 이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즉 한방에서는 실제 몸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생리적 변화의 과정을 직접 검사를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난 신체의 여러증상을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에 입각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비해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의 원인이 되는 생리현상을 각종 과학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 잘못된 생리현상을 바로잡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에는 당뇨라는 병명은 없으며 다만 당뇨병때 나타나는 여러증상으로 「소갈」(消渴)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즉,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양이 증가하고 체중이 줄며 원기가 없어지는 경우를 통틀어 소갈이라고 하며 동의보감의 저자로 유명한 허준선생은 여기에 각종 합병증이 생겼을 때 합병증에 의한 증상에 따라 상소


**현대의학이 규명한 당뇨병이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분을 우리 몸이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영양실조가 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즉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몸안에서의
 연료(즉 에너지)는 당이다. 많은 환자들이 당을 아주
 해로운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사실은당은 우리몸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연료인 것이다.**


(上消) 중소(中消) 하소(下消) 등으로 나누고 있다.

당뇨병의 병태생리

현대의학이 규명한 당뇨병이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분을 우리 몸이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영양실조가 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즉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몸안에서의 연료(즉 에너지)는 당이다. 많은 환자들이 당을 아주 해로운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데 사실은 당은 우리몸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연료인 것이다.

문제는 이 당이 적절하게 이용이 되지 못

하면 1) 혈액이 적체되어 혈당치가 높아져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한 소변으로 넘쳐나가기도 하며

2) 신체는 신체대로 에너지부족으로 기운이 없고 건강을 잃게되는 것이다.

당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뇨병이란 인슐린작용이 적절하지 못하게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뇨병의 치료원칙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든지 하여

1) 음식으로 섭취한 당을 적절하게 이용

“
당은 우리몸에 가장 중요하고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안에서는 무엇을 먹든지
그것을 원료로 하여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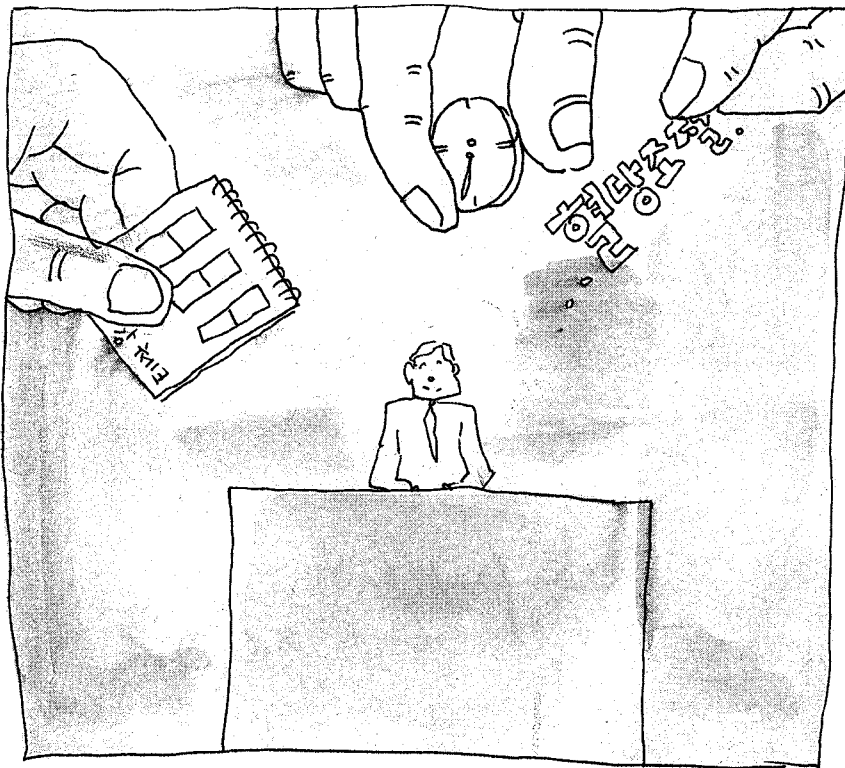
”
하도록 하여주며 또한 지나치게 혈당이 높
아지지 않도록 해야된다.

2) 지나치게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
야된다.

즉, 당뇨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
사요법이란 점이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고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
문에 우리 몸안에서는 무엇을 먹든지 그것
을 원료로 하여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흙이나 짚과 같이 먹어
서 당의 원료가 되지않는 것은 음식이 아니
다. 따라서 당을 만들어내지 않는 음식만을
가려서 먹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일
뿐만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
로 당뇨환자는 음식을 가려서먹는 「식이요



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만큼의 당을 만들어내기 위한 음식을 섭취하는 「식사요법」을 해야 한다.

당을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작용을 높여주어야 한다. 운동은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한편 비만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므로 필요없는 군살 즉, 지방을 빼서 적정체중(이상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철저하게 하여도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하면 약물을 사용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거나(먹는약),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으면 직접 인슐린을 주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록 환자가 치료를 하지않아도 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즉, 완치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치료를 계속하는한 정상인과 꼭 같게 당을 이용할 수 있어 정상인과 다름없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런 뜻에서 당뇨병은 병이 아니라 「당을 정상적으로 이용 못하는 상태」이며 당뇨병환자는 정상인과 그 생리가 다른 「당뇨인」이라고 이해하여야 하겠다.

당뇨병의 한방치료

동의보감에 의하면 소갈증에 유효한 여러 처방이 각 증상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처방은 때로 환자의 자각증세에는

〈표1〉 한방의 증상에 따른 처방

1. 上消		
人蔘白虎湯	加味錢氏白術	麥門冬飲子
降心湯	人蔘石豪湯	清心蓮子飲
和血益氣湯	生律養血湯	黃芩湯
2. 中消		
調胃承氣湯	加減三黃丸	蘭香飲子
生律甘露湯	順氣散	人蔘散
黃連豬肚丸	菝汁豪	
3. 下消		
六味地黃丸	人蔘茯苓散	加減八味元
加減賢氣丸	補賢地黃元	鹿茸丸

효험이 있으나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은 인삼 혹은 홍삼을 위시하여 모든 처방이 뚜렷하지 않다.

즉,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은 각 증상에 대한 처방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면 상당한 자각증상의 호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병이 호전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증명하기 어려우며 특히, 혈당조절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히 미미한 정도이다. 이는 〈표2〉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단방약을 사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한약을 사용하여 많은 효험을 보았다는 환자들의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결과도 갖가지 한약제를 실험하여본 결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은 미미하여 전적

〈표2〉단방(單方) 약 40종

石 蓼	竹 葉	滑 石	地 漿	竹 瀝
麥 門 冬	黃 栢	黃 連	黃 芪	葛 銀
瓜 萎 根	淸 苧 汁	地 骨 皮	蚊 蛤	忍 冬 草
桑 枝 茶	桑 根 白 皮	牡 蠣 肉	蛙 蛤	漁 鮎 延
田 螺	生 藕	紅 柿	烏 梅	梨
猴 獼 桃	五 味 子	麻 仁	栗 米 泔	蓴
綠 豆	靑 梁 米	糯 米	冬 瓜	菘 菜
雄 鷄 湯	白 鷄	黃 雌 鷄	牛 乳	猪 肚

으로 한방치료만으로 당뇨를 조절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이 결과는 한방의 진단이 원천적으로 생리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타난 증상에 따라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증상만 비슷하면 같은 소갈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방치료의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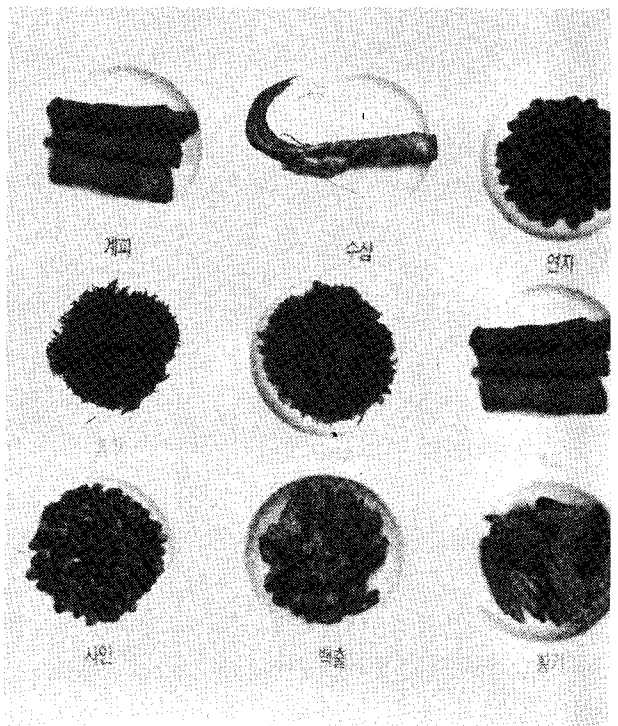
비록 한방치료가 당뇨의 근본원인인 당대사장애를 교정하여 혈당을 조절하지는 못할지라도 때로 환자의 자각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키는 예는 많이 볼수 있다. 특히 고혈압, 신경증, 신증 등 만성합병증에 따라 오는 여러 증상에 효험이 있는것은 나름대로

뜻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단계에서 당뇨의 치료를 전적으로 한방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당대사의 개선은 현대의학에 의존하고 보조적인 치료로서 여러 자각증상의 치료방법으로 한방을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리라 본다.

한방·민간요법의 부작용

간혹 한방요법 또는 민간요법으로 혈당이 낮아지는 환자들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설사를 하고있다.





간혹 한방요법 또는 민간요법으로 혈당이 낮아지는 환자들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설사를 하고있다. 즉 먹은 음식의 상당부분이 대변으로 배설되어 결과적으로는 영양분 섭취가 줄어 식사요법을 철저히 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먹은 음식의 상당부분이 대변으로 배설되어 결과적으로는 영양분 섭취가 줄어 식사요법을 철저히 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몸이 쇠약하다고 하여 보약으로 녹용을 사용하면 당뇨조절이 나빠진다는 사실이다. 증상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잘 치료되어 퇴원한 후 몸보신한다고 보약을 먹을때 잘못 녹용을 사용하여 다시 당뇨상태가 악화되는 예를 진찰실에서 흔히 만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을 한방에만 의존하여 치료할 수는 없으며 당이용이 잘 되지 않는 기본적인 치료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막연한 자각증상에 대하여 한방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방의학 자체가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이에대한 치료를 경험적으로 하고있으니, 생리적, 병적 상태는 접어두고 자각증상의 호전에 한방이 유효한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난 증상은 같을지라도 그 원인이 되는 생리적·병적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자각증상의 호전이 당뇨의 기본적인 병적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사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